부처님법, 법화의 법문 강조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㊺ 보현보살이 기사굴산에 오다

그때 보현보살이 큰보살들과 함께 동방으로부터 왔다. 오면서 거치는 국토마다 진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연꽃의 비가 내리고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음악 소리가 들렸다. 무수한 천신 · 용 · 야차 · 건달바 · 아수라 · 가루라 · 긴나라 · 마후라가 사람인 듯 사람 아닌 이들에 에워싸여 무리와 함께 각기 위덕과 신통의 힘을 나타내어 사바세계의 기사굴산에 이르러서 석가모니여래께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일곱 바퀴를 돌고 나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위덕상왕불의 세계에 있다가 멀리 여기 사바세계 가운데서 〈법화경〉을 설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보살과 함께 이를 듣고자 왔습니다. 원컨대 세존이시여, 어서 저희를 위해 설해주소서. 선남자, 선여인이 여래 멸도하신 후, 어떻게 이 〈묘법연화경〉을 능히 얻어 지니오리까?"

부처님이 보현보살 향하여 이르셨다.

"선남자, 선여인이 네 가지 법을 성취해야 여래 멸도한 후 이 〈법화경〉을 얻게 되리니, 첫째는 모든 부처님에 의해 호념하는 바가 되어야 하는 것이오, 둘째는 미덕의 뿌리를 심는 것이요, 셋째는 정정취에 들어가는 것이요, 넷째는 온갖 중생을 구제하려는 뜻을 내는 것이니라. 선남자, 선여인이 이러한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면 여래의 멸도 후에도 반드시 이 경을 얻게 되리라." 그때 보현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후오백세의 혼탁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응당 수호하여 그의 재앙을 없애고 편안케 하여, 마군이 틈을 엿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마거나, 악마의 아들 · 딸, 백성이거나, 악마에 붙들린 자거나, 야차건 나찰이건 구반다, 비사사나, 길자, 부단나, 위타라 따위, 사람을 괴롭히는 온갖 무리들이 모두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걷거나 서 있으면서 〈법화경〉을 독송하면 제가 그때 여섯 개의 이빨을 갖춘 흰 코끼리를 타고 큰보살들과 함께 그곳에 이르러 몸을 나타내어 공양하고 수호해서 위안해 주겠으니 이 또한 〈법화경〉을 공양하고자 하는 까닭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 앉아서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다시 흰 코끼리를 타고 와 그 사람 앞에 몸을 나타내어 그 사람이 혹 〈법화경〉의 한 구절이나 한 게송이라도 잊은 것이 있을 적에는 가르쳐 주고 함께 독송해 다시 통달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때 〈법화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는 사람이 저의 몸을 보고 나서 크게 기뻐서 더욱 정진하게 될 것이며, 저를 본 까닭으로 곧 삼매 다라니를 얻으리니, 선다라니, 백천만억 선다라니, 법음방편다라니 등 이와 같은 다라니를 얻게 될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부처님 세계를 내왕하는 보살들의 활동이 묘사되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마지막 품인 '보현보살권발품'에도 보현보살이 보위덕상왕불 세계에서 석가모니부처님을 찾아 사바세계 기사굴산(영축산)으로 온다. 보현보살이 부처님 열반 후의 〈법화경〉 수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묻는다. 여기에 네 가지 법이 갖춰져야 〈법화경〉을 만날 수 있다 하였다. 이것은 〈법화경〉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말하는 것으로 △부처님의 호념과 △선근을 심은 공덕, △사법(邪法)을 벗으나 정법에 들어와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는 정정취(正定聚)에 들어가는 것과 △중생을 구제하려는 서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밝혀 놓았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법화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호념을 얻을 수 있고 선근(善根)을 심을 수 있으며 정법에 머물러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서원을 키우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말세에 〈법화경〉이 중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해 놓은 것이다. 이어 보현보살도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을 수호하고 재앙을 막아주며 마군의 침입을 봉쇄 다라니를 얻도록 해주겠다고 부처님 앞에서 다짐을 한다. 다분히 희곡(戱曲)적인 요소로 전개되는 이야기이지만 결국 부처님의 법이 법화의 법문이라는 것을 강조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상황윤리 비견되는 대승계의 '지범개차'

〈持犯開遮〉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㊺ 지범개차의 윤리적 적용

우리는 나날이 발전하는 생명 공학과 의료 기술로 인해 이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특히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일 경우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번민을 거듭하기도 한다.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시기에 철학자들은 전통 윤리 이론인 공리주의, 의무론, 덕윤리 등을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하여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윤리 이론을 적용할 경우, 그 해결책도 달라지므로 사실상 의견의 일치에 이르기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각자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유신론적인 전통에서 생명에 관한 문제는 창조주인 신의 영역으로 여겨져서 다소 경직된 자세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죽음의 정의, 안락사, 임신중절, 인간 배아 연구 등의 윤리적 딜레마는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관련된 것이어서 해명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실천신학, 또는 도덕신학에서는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기독교 도덕신학자들은 가톨릭 도덕신학자들에 비해 유연한 입장이었으며,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 플레처(Joseph Fletcher)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새로운 도덕으로 '상황 윤리(Situation Ethics)'를 제안했는데,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료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생명윤리에서의 도덕적 문제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료에 관련된 특수한 문제로 그 상황에 적합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이에 따라 상황 윤리에서는 선과 악에 대한 도덕적 판단보다 상황에의 적합성을 윤리 문제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윤리적 원리나 규범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절대적인 삶의 원리로 제시하는 것은 아가페(Agape)이다. 다시 말해 인류에 대한 보편적 사랑을 중시하며, 인간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선을 향상시키는 것을 옹호하였다.

상황 윤리에 비견되는 것으로 대승계(大乘戒)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지범개차(持犯開遮)'를 꼽을 수 있다. 원래 지범(持犯)은 광율(廣律)의 경분별(經分別) 가운데 계조(戒條)에 부수(付隨)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다양한 조건 아래서의 범계(犯戒)의 성립과 불성립, 죄의 가벼움과 무거움 등이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보살계에서는 계조(戒條)나 수계법(受戒法)을 설하기는 하지만, 지범(持犯)이 상세히 설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보살계에서는 개(開: 허락)와 차(遮: 금지)로 접근하는데, 같은 계(戒)일지라도 어떤 때에는 허락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금지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보살에게는 상황에 따라 금지된 행위일지라도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허락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은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慈悲心)에 입각한 원행(願行)'이다. 따라서 보살계의 개차(開遮)는 보살계의 지범(持犯)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개차지범(開遮持犯)으로 쓰이기도 한다.

〈유가론(瑜伽論)〉의 보살지(菩薩地)에는 보살의 살생이 허락되는 경우가 설해지고 있다. 보살은 재물 때문에 수백의 생명과 위대한 존재들, 성문과 연각과 보살들을 죽이려 시도하고 많은 무간업(無間業)의 행위를 하는 도둑을 보게 된다. 그는 자신이 이 사람을 죽인 후에 지옥에 태어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무간업으로 인해 지옥에 가지 않기 바라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으로 보살이 이 사람을 죽인다면 보살에게는 범계(犯戒)가 없고 많은 복덕이 생겨난다고 한다. 여기서 보살은 많은 생명이 살해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둑에 대한 연민으로, 지옥의 과보를 마다하지 않고서 살생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㉑ 성불을 이루는 지관수행

깨달음 성취위해 지관수행 실천을…

중생심을 진여본성으로 되돌리는 방법

불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무명과 망심과 망경계로 훈습되어진 무명의 마음을 본래의 진여본성으로 되돌릴 수가 있을까요? 해답은, 먼저 마음을 '깨달음의 상태' 즉 '명각(明覺)'의 마음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명각(明覺)이란 말은 무명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마음이 항상 밝게 깨어있는 상태를 명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명각의 상태가 되면 무명과 망심과 망경계로부터 훈습된 마음의 집착과 업력의 습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밝은 깨달음의 상태인 명각의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명각의 상태로 만들어서 본래의 청정과 본래의 지혜를 갖춘 진여본성과 상응하게 되면 무명의 망상이 만들어 낸 망경계에 속지 않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 감각기관을 통해 접촉하여 인식하는 경계들은 실다움이 없습니다. 마치 눈병 걸린 사람이 병으로 인해 헛꽃을 보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눈병이 생겨서 나타난 헛꽃들이 눈병이 완치되면 헛꽃이 모두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무명 때문에 나타났던 일체 망경계들은 진여본성과 계합되는 순간 모두가 환과 같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본성과 상응하지 못하고서 망념을 통해 나타나는 일체 경계들은 마치 꿈속에서 보는 환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 없는 무명심으로 인생을 속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명각(明覺)으로 망경계 벗어날 수 있어
불교의 모든 수행 지관수행 안에 포함

깨달음을 얻는 지관(止觀)수행

불자 여러분! 불교의 궁극적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관수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관수행은 불교의 대표적인 선정수행입니다. 특히 마음에 삼매와 심일경성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관수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불교의 모든 수행은 지관수행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선정(四禪定)수행이나 사념처(四念處)수행 그리고 육바라밀(六波羅密), 팔정도, 간화선, 묵조선 그리고 염불, 참회 등의 모든 수행들은 모두 지(止)와 관(觀)이라는 개념으로 각각의 수행법 속에 깊숙이 녹아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관수행에 있어서 지(止)란 말은 인도말 사마타(samādhi)를 말하는데 '집중하다'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삼매(三昧)'라고 부릅니다. 사마타는 '고요하다, 평온하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맑아진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사마타는 일체대상 경계를 반연해서 일어난 모든 번뇌망상을 멈추고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사마타 수행은 일체 모든 경계 대상을 반연해서 일으키는 분별망상을 멈추거나 끊어서 내재된 본래의 진여심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타 수행은 고도의 집중력으로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하는 기준점을 정해 놓고 마음을 그 기준점에 붙들어서 밀착하여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 일체의 다른 경계대상들이나 내면에서 일어나는 번뇌 망상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마타는 마음의 동요가 사라진 고요한 상태 즉 '적멸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觀)이라는 말은 인도말 위빠사나(vipaśyanā)를 말하는데 이는 '사물을 지혜로 통찰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위빠사나는 '면밀하게 관찰하고 꿰뚫어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체대상 경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통찰하는 지혜(智慧) 또는 불지견(知見)을 닦는 수행이 위빠사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제 105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6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인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